재개된 중동 불안과 관세 개편, 사모신용 리스크 소화하며 지수 혼조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중동 갈등 재개에 유가 폭등, 장중 등락폭 키웠으나 보합권 마감

- 미 증시는 DOW -0.13%, S&P500 +0.11%, NASDAQ +0.18% 보합권 혼조세
- 트럼프 대국민연설에서 고강도 공격 시사에 이어 미군의 이란 교량 격파로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재차 부각, 주요지수 장중 1~2% 대 약세 흐름
- 이란이 오만과 종전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관리 의정서 마련 논의중이라는 보도 후 지수 낙폭 회복
- 달러인덱스(99.8), 금(-2.3%) 또한 장중대비 변동폭 축소. 다만, 유가 상승세 지속 WTI $112(+11.9%), Brent $109(+7.8%)

트럼프 행정부의 금속, 의약품 등 품목 관세 개편

- 철강·알루미늄 등 금속함량 기준별 15% 미만은 면제, 15% 이상은 25% 단일관세 부과 방침. 세탁기, 생활용품 등 금속비중 낮은 소비재 부담↓. 철강코일 등 금속제품에는 50% 고율관세 유지
- 특허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100% 관세 부과 발표. 일반의약품, 바이오시밀러는 미대상이나 1 년후 재평가 예정. 미 정부와 가격 인하·온쇼어링 협정 기업은 면제되며 무역합의 체결국은 합의 관세율을 따를 방침(한국·일본 등 15%)
- 품목 관세는 무역법 232 조에 의한 것으로 2 월 상호관세 위법판결과는 별개의 건. 한편, 2 월 미 무역적자 -573 억 달러, 전월비 +4.9% 적자 증가

고용지표 혼재, IMF 는 미 금리 인하 여력 제한적으로 평가

- 3 월 챌린저 감원계획 6.1 만명 전월비+25%. 기술, 운송, 헬스케어 중심 감원 증가. 특히 기술기업 감원통계는 델 감원 중심, 오라클 및 메타 감원 건은 전체 규모 반영 전 지표에 해당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.2 만건으로 전주·컨센 하회, 2 개월래 최저
- IMF 는 미 연준이 1 년간 정책금리를 낮출 여지가 제한적이라 평가. 올해 1 회 인하를 전망하되, 노동시장 전망 악화와 단기인플레 기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전망. 1H27 인플레 2% 복귀 가능할 것으로 전망

특징주: TSLA 인도량 실망감, OWL 사모대출 우려 지속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TSLA	테슬라	-5.4%	1분기 인도량 실망감에 주가 약세. 1분기 인도량은 35.8만대로 전년(33.7만대) 대비 증가했으나, 컨센(36.6만대) 하회. 한편 웨드부시는 투자의견 '아웃퍼폼', TP $600를 재차 제시, '26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AI 이니셔티브와 로보택시 출시 지목
OWL	블루아울	-1.6%	사모대출펀드 OTIC(블루아울 테크놀로지 인컴)와 OCIC(블루아울 크레딧 인컴)의 1분기 환매 신청 비중이 각각 40.7%, 21.9%로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가 약세. 한편 사측은 분기별 환매 한도(5% Cap)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유동성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고수
AMD	AMD	+3.5%	최신 AI 추론 벤치마크 MLPerf 6.0에서 차세대 GPU Instinct MI355X 가 사상 최초로 초당 100만 토큰 처리 달성. 생성형AI 추론 시장 내 경쟁력 입증하며 주가 강세
META	메타	-0.8%	웰스파고는 투자의견 '비중확대' 유지, TP $856→$765 하향 조정 소식에 주가 약세
CVX	쉐브론	+0.8%	유가 상승에 주가 소폭 상승. 반면 카니발(-3.5%), 델타항공(-1.2%) 등 크루즈/항공주는 약세
GSAT	글로벌스타	+13.4%	스페이스X발 우주항공테마 부각된 가운데, 아마존이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주가 급등